광주 금동 초고층 재개발 될 듯

도시계획위 결정 … 문화전당 조망권 해칠 가능성

광주공원 앞 4천㎡ 매입해 녹지지역으로

백운·주월동 정비, 아파트 아닌 현지개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바로 인근인 동구 금동지역에 대한 30층 이상의 초고층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동 도시환경정비사업안을 포함한 '2012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26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공원 확장, 남구 백운2동 1구역 및 주월2동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등을 함께 의결했다.

◇**금동 재개발 본격화**=이날 회의에서 '금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은 '코밀빌딩 제외, 폭 13m 이상 녹지대 조성' 등을 조건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동 정비예정구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허용 용적률이 750%에 이르러, 초고층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지하에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망권을 해친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광주에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재개발은 북구 누문동에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획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됐으며,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조망권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무등산과 광주공원 쪽으로의 조망을 중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원 인근 공원 편입**=광주시는 광주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광주교~중앙대교 사이 제3종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3천793㎡를 117억원에 매입, 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은 2년 간 지장물 철거, 나무 식재 등을 거쳐 공원으로 거듭난다. 지난 1943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광주 제1호 공원'으로 지정된 광주공원의 면적도 기존 4만3천950㎡에서 4만7천923㎡로 늘어난다. 금남로공원 등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호평을 받은 시가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의 주거지역 등을 공원화하는 시책에 나선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백운·주월동 정비**=주로 단독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면 개량방식으로 진행됐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다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은 현지주민들이 증·개축, 리모델링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불황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성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24동의 건축물 중 175동이 노후 건축물로, 노후비율이 78.1%에 이르는 백운2동 1구역과 노후비율이 69.9%인 주월2동 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4개 노선과 3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초등 1~2학년 내년부터 무상 급식

전 학년 학습준비물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도 모두 무상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3천 386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3만3천741명에 이르는 초등 1~2학년의 무상 급식을 위해 12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학습준비물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40억원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생 1인당 3만5천원씩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466억원을, 장애학생 지원사업인 특수교육지원비는 13억원이 증가한 63억원을 편성했다.

장문수 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팀장은 "학생중심의 예산 지원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총학·총여학생회장 투표관리 오류 내달 재선거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가 투표 관리 오류로 인해 재선거를 치른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동안 치러진 선거 결과, 투표인명부와 투표용지 수 사이에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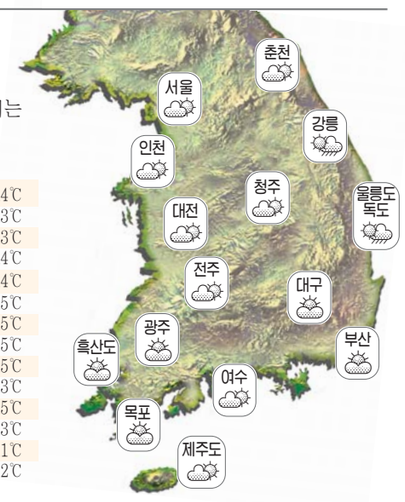
3명의 후보가 나온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차가 45표였으나 투표인명부와 투명용지의 오차가 82표 발생해 무효처리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7시 18분 / 해짐 17시 21분 — 달뜸 13시 50분 / 달짐 01시 48분

안개 조심하세요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5/14℃
목 포	구름 많음	5/13℃
여 수	흐린 뒤 맑음	9/13℃
완 도	흐린 뒤 맑음	6/14℃
구 례	흐린 뒤 맑음	2/14℃
해 남	구름 많음	5/15℃
장 흥	흐린 뒤 맑음	5/15℃
고 흥	흐린 뒤 맑음	3/15℃
순 천	흐린 뒤 맑음	5/15℃
영 광	구름 많음	5/13℃
진 도	구름 많음	6/15℃
전 주	흐린 뒤 맑음	4/13℃
남 원	구름 많음	0/11℃
흑산도	구름 많음	10/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9:43 21:57	02:59 15:27
여수	05:11 17:27	11:06 23: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토)	29(일)	30(월)	12/1(화)	2(수)	3(목)
날 씨						
최저/최고	2/14	4/12	3/14	2/14	4/12	2/12

송정동~나주 4차로→6차로 확장

광주경찰청~상무로 간 도로 개설

광주시가 내년부터 사업비 1천100억여원을 들여 광산구 송정동~나주시 경계 간 도로를 확장하고,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를 개설한다.

광산구 송정동~나주시 경계 간 도로확장공사는 광주권 광역도로 사업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10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연장 5.7㎞인 이 구간은 703억원(국비 3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015년까지 확장된다. 좁은 차로와 굴곡으로 교통사고와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잇따랐던 이 구간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시는 하남산업단지와 상무로를 잇는 연장 1.55㎞(폭35m)의 간선도로 중 경찰청~상무로 간 1.01㎞를 내년부터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53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540m는 지난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사 개청에 맞춰 개통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남구 자전거 무상수리

광주시 남구는 26일 청사 내 주차장에서 남구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주민 50여명의 자전거를 무상 수리해줬다. 자전거무상수리센터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보도연맹 4,934명 희생 확인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6·25 전쟁기간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여기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까지 포함시키면 최소 2만221명의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보도연맹원 2천26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성과 광산(각각 최소 500명)에서 희생자가 많았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로, 국민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수는 30만명에 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